



재외동포 자녀들의 이중언어능력과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이해

2차시: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





학습목표

01 한국어의 독자적인 지위 이해

💡 재외동포들이 사용하는 한국어의 독자적인 지위를 이해할 수 있다.

02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이해

💡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을 이해할 수 있다.

03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목표, 지향점 정립

💡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지향점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.



01

이중언어교육과 한국어 교육



❁ “이주자 자녀들이 현지 사회의 언어로만 교육받는 경우를 이중언어교육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.”

Garcia 2009

💡 단일어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타 언어와 문화에 배타적



❁ 이중언어교육은 두 언어를 사용해서 교과목을 가르친다는 것

💡 두 언어를 평등한 언어로 상정하며 타 언어와 문화 집단에 대한 관용을 가르침

💡 이로서 이중언어교육은 “정규교육을 제공하면서 둘 이상의 언어를 가르치며 언어와 문화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개발하고 인류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.”

Garcia 2009, p. 6

- 한국어 교육은 이중언어교육이 아니다.



02

재외동포 자녀들의 한국어



재외동포 자녀들에게 한국어는 모국어인가?

 모국어는 어린 나이에 습득해 높은 수준의 구어 유창성과 언어 수준을 가진다는 관념이 뒤따름(Davis, A. 1991)

-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같을 수 없음



외국어로서의 한국어

-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는 한국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 학습자
-  재외동포 자녀들은 듣기를 포함한 구어 영역에 월등한 경우가 많아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과정이 적절하지 않음

재외동포 자녀들에게 한국어는 계승어



03

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



❁ 계승어의 정의



Valdes 2000

“사회의 소수 언어로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배우는 언어”

💡 “가족 또는 혈연의 관련성으로 인해 아동기에 노출된 경험이 있어서 **최소한의 수동적 지식**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**비주류 또는 소수가 사용하는 언어**”



계승어의 정의

 즉, 재외동포 자녀들에게 부모의 언어인
한국어는 **계승어**



04

계승어 교육에서 고려할 사항

(조태린, 2014)



학습자의 유형과 언어 사용 환경

 외국인 학습자와 구별해야 함

 재외동포 자녀들 중에서도 언어 사용 환경이 다름



❁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언어 구사 능력의 최종 도달 목표

- 💡 모국어 화자의 능력? vs 의사소통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 수준?
- 💡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관계 유지의 상대가 누구인가?



05

계승어로서의 한국어 사례들



❁ 사례 1

- 호주

“에스테이트 에이전시(부동산)에 노티스(퇴실 전 사전 고지)를 해요. 그러면 에스테이트 에이전시에서 나와서 인스펙션(관리상태 점검)을 해요. 인스펙션 받고 본드(사전 예치금)를 되돌려 받게 되지요.”

권순희 이화여대 국어과 교수의 발표 자료에서 발췌 (허겸 & 김영기, 2015)



❁ 사례 2

- 우스베키스탄

“우리 아시적(아이 적)인디. 청일전쟁 때 다섯 살, 여섯 살 때, 그 우리 촌 영감 무시긴가(무엇인가)하니, 우리 원동(극동)서 본 것 같은 분이라, 우리 근처에 살지. …(중략)… 그 거리에 담벽옥(담벼락)이 나면 다 듣지요.”

권순희 이화여대 국어과 교수의 발표 자료에서 발췌 (허겸 & 김영기, 2015)



❁ 사례 3

- 미국

(학생에게 책을 한 권 주겠다고 했던 강사가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다. 학생이 찾아와서 마치 맡겨놓은 것을 달라는 어투로 강사에게 말한다.)

“선생님 책 주세요.”

권순희 이화여대 국어과 교수의 발표 자료에서 발췌 (허겸 & 김영기, 2015)



❁ 사례 4

- 한국 다문화 가정

머리가 똑똑하신(윗사람에게 쓰지 않음)
선생님들께서는 색종이에 자기 자신에 대해 쓰기로
하였습니다.

권순희 이화여대 국어과 교수의 발표 자료에서 발췌 (허겸 & 김영기, 2015)



06

계승어에 대한 평가와 이해



❁ 기존의 지배적인 관점: 언어를 단일한 것으로 보는 관점

💡 현지어와 한국어를 혼용하는 ‘박찬호 미국 진출 초기 인터뷰’식 언어 사용이라 호칭하며 매우 부정적으로 봄



❁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주장: 다수의 언어들을 인정하는 관점

- 💡 재외동포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한국 국내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 다른 특징을 가지므로 계승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연구를 해야 함,
이 입장에 의하면 한국말로 현지 주류 문화를 배울 수 있다고 함



❁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주장: 다수의 언어들을 인정하는 관점



권순희, 2015

“역사가 흘러가면서 여러 나라마다 교민 공동체가 사용하는 한국어는 우리나라의 한국어와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연구, 정리할 필요가 있다”



❁ 해외의 이중언어주의 연구자: 언어 간 경계를 부인

언어교체(code-switching)와 언어혼성(code-mixing) 그 이상이며, 두 언어를 하나의 통합된 언어 체계처럼 사용하는 과정으로, 자신들의 언어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더 확장하고 자신들의 이중언어 세계를 깊이 이해하는 행위이다.

Garcia, 2009, p. 45



Q.

계승어 사례 1에서 보았듯이 교실 수업에서
현지어가 섞인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정말
괜찮을까요?

💡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,
언어자료와 실물교재를 사용하는 것은
외국어 교수학습론에서도 인정

- 실생활에서 쓰는 언어자료 사용,
효과적인 교수/학습



학습정리

- ◆ 재외동포들과 자녀들이 사용하는 한국어가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 다른 특성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.
- ◆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를 절대적인 규범으로, 계승으로서의 한국어를 2등급 한국어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.





학습정리

- ◆ 마찬가지로, 재외동포 자녀들의 언어사용이 한국 사회 내에서의 한국어 사용과 다름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.
- ◆ 계승어 교육의 목표는 올바르다고 믿는 언어의 형태를 고집하기보다는, 서로 다른 언어적 특징을 가진 대화 상대에 따라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개발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.





참고문헌

- 조태린. (2014). 계승어 교육 측면에서 본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과정 분석 - 총론을 중심으로-. 이중언어학, 55, 381-407.
- 허겸, & 김영기. (2015). “교민 한국어는 ‘계승어’, 새로운 연구 접근법 필요”. 2017년 7월 27일 재외동포신문
<http://www.dongponews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8458>
- Davies, A. (1991). The native speaker in applied linguistics. In A. Davies & C. Elder (Eds.), The handbook of applied linguistics. Malden, USA: Blackwell Publishing.
- Garcia, O. (2009). Bilingual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: a global perspective. Malden, MA: Wiley-Blackwell.
- Valdés, G. (2000). The teaching of heritage languages: an introduction for Slavic-teaching professionals. In O. Kagan & B. Rifkin (Eds.), The learning and teaching for Slavic languages and cultures. Bloomington, IN Slavica.

